

내년도 짚꼼 예산... 호남고속철 2단계 등 '비상'

2016 신규·계속사업 국비 반영 광주 21%·전남 26% 그쳐

시·도·지역 정치권 힘 모아 치열한 예산 확보 노력 나서야

광주시와 전남도의 2016년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부처별 2016년 예산요구액'에서 광주·전남이 건의한 주요 신규·계속사업 예산 중 상당수가 누락되거나 '짚꼼'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5년에 이어 내년에도 광주·전남에 대한 정부의 예산차별이 예고됨에 따라 시·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치열한 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6년 국비지원 주요 현안사업으로 총 49건 5187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부처 반영액은 1093억원(2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18건(574억)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비가 미확보된 현안사업은 광주의 미래 첨단 먹거리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총 사업비 1321억원)을 비롯한 아시아문화채널 및 지원센터 조성

(500억원), 모뎀형 다단계 변환기 기반 직류송전시스템 개발(1860억원), 플라즈마 기반 광·에너지 소재산업 고도화(350억원) 등이다.

그나마 위안인 점은 '짚꼼예산'이긴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8347억원) 5억원, 상무지구~첨단단지 간 도로개설(1645억원) 52억원 등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47개 주요 신규사업과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광주송정~목포) 등 10개 주요 계속사업의 정부부처 건의액 7866억원 중 최근 확정돼 기재부로 넘어간 예

산은 2036억원(26%)이다.

특히 전남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계속사업 튜닝산업지원시스템 구축(건의액 122억원),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1000억원) 등이 각각 51억원과 100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쳐 사업 지체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7개 주요 신규사업 가운데 튜닝부품 제조기업 역량강화사업(30억원) 등 20개 사업은 아예 정부부처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200억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3단계 산업단지 조성(20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

만시설 투자지원(300억원), 전라남도 통합방사능 방재센터 건립(10억원), 국립연안기후변화 연구센터 건립(40억원) 등 전남도가 수년째 공들여온 역점사업의 예산확보마저 사실상 어렵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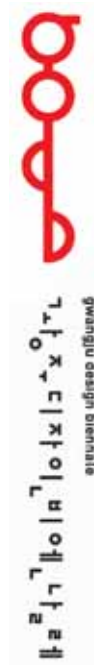
시·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 추가시키거나 향후 국회에서 중요 신규·계속사업의 예산을 반영 또는 상향하는 데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 예산은 증가하는데 광주와 전남은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10월 비엔날레전시관서 열려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10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열린다.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는 17일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6회째를 맞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 처음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총감독은 최경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이 맡았다.

행사는 2개의 주제전, 3개의 본전시, 4개의 특별전, 학술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전체 예산은 23억원이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일본의 건축가 토요이토와 뉴욕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파올라 안토넬리,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뮤지엄의 안드레아 칸첼라토 관장 등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들이 직접 전시 큐레이터와 작가로 참여한다. 특히 이들 작가들은 광주지역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모델들을 제시한다.

최경란 총감독은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동·서양의 가치가 융합된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제시할 것"이라며 "미래 디자인산업의 지역 핵심 콘텐츠로 발돋움시키고자 로컬과 글로벌의 융합을 통한 지역 디자인산업의 브랜드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메르스 방역 정부 예산지원 북한 선수단 참가 노력해야"

새정치, 광주U대회 점검회의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점검회의를 열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대회 성공을 위해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U대회 점검회의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역시 메르스에 대한 안전"이라며 "다행히 광주는 메르스 청정지역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메르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방역 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또 "광복 70주년이자 6·15선언 15주년이 올해 북한이 참석해 이번 대회를 한반도 평화의 새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직전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은 "메르스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가장 완벽한 메르스 대책은 가장 강력한 대회 지원책이다. 정부가 메르스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인 광주 행정부시장은 "지금 광주는 시민 모두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의지를 다지고 손발맞추어 여념이 없지만 메르스가 변수로 떠오르며 걱정스럽다"며 "메르스로부터 지역민과 방문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U대회)조직위가 메르스 대책비 62억원을 요구했고 입장권 판매를 위해 국회 국제경기특위 차원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외국 선수단 응원단이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국가가 모든 치료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마스크 쓰고 "나이스 큐"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17일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지하 당구장에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당구 경기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발생지' 누명 쓴 광주

확진 48번·64번 주소지 만 광주...타지역 격리·접촉자 '이상무'

'메르스 청정지역' 광주시가 보건당국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애매한 확진환자 분류방식 때문에 '메르스 발생지'라는 누명을 뒤집어쓰면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광주U대회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일부에서 주소지가 광주인 메르스 확진자 2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이후

광주를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광주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분류하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상황 보고를 하고 "48번(39)·64번(75) 이상 광산구 등 2명의 확진환자 주소지가 광주인 것은 맞지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뒤 해당 병원에서 48번은

격리 치료중이고, 64번은 지난 6일 사망했다"면서 "광주는 여전히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형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날 "48번 확진자는 거주지가 광산구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한 부인간병 과정에서 지난 6일 최종 확진됐다. 부인도 같은 병원 암병동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한국의 메르스는 전염병이 언제든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세단뛰기 희망
날아라 배찬미

광주 U대회
UNIVERSIAD GWANGJU 2015

D-15

6월 19일 OPEN

첨단을 이끄는 프리미엄 일등식!

첨단 연세 고운하이플러스

첨단2지구 생활권

중도금 전액 무이자

평당 700만원대

남향배치

4-BAY 혁신평면 (일부세대 제외)

팬트리로 넉넉한 수납공간 (일부세대 제외)

*상기 옵션은 소비자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건축의 생애, 디자인 및 내구성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기념 경품대잔치

경품내용 : 명품백 1명, 50인치 LED TV 1명, 진공청소기 2명, 자전거 10명

이벤트1 오픈기념 경품이벤트(6월 21일)

▶ 추첨일시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 (※ 참석자에 한함)

이벤트2 방문기념 경품이벤트(당첨자 발표일)

▶ 추첨일시 : 당첨자 발표일 당일 오후 4시 (일차 추후 공지)

* 본 사업장은 당시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개비용은 불기합니다. * 상가 이바지는 용역지역에 의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시영 **고운하이플러스(주)**
시영 **고운건설(주)**

73㎡(구28형), 75㎡(구29형), 84㎡(구33형) 총 254세대

분양문의. **062) 529-8100**